

우수관광자원 홍보 · 관광객 유치 나서

군산시, '대만 가오슝 국제관광전 참가

군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18 대만 가오슝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군산의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만 가오슝 관광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국제관광전은 국내에서 군산시 등 10개 TPO(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

진흥기구) 회원도시가 공동으로 참가했다.

시는 젊은 층과 가족 중심의 개별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맞춤형 관광코스 및 체험관광자원을 현지 주요 여행업체와 여행객, 관광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쳤다.

또한 TPO 회원도시(10개국 86개 도

시, 2018년 1월 현재)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교류·협력의 폭을 넓혔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최근 군산항과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동안 주력했던 중국, 일본과 더불어 대만,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력 인바운드 여행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의 사남부에 위치한 가오슝은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며, 항구도시의 특색을 살려 2년에 한 번씩 제17회 부두에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초대해 국제 콘텐츠 예술제를 열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물 인문학' 새로운 인문학 흐름 모색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수자원공사 동북아시아 물 정책 연구 협력 학술교류 협약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소장 류권홍)와 한국수자원공사 물정책연구소(소장 서석규)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원광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한국수자원공사 서석규 소장과 이수국 차장, 류문현 박사 등이 원광대를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약은 두 연구소가 동북아시아의 인문·사회·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북아시아 물 정책에 대해 함께 연구 협력함으로써 '물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인문학의 흐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연구소는 향후 물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정책에 대한 고민을 공유·협력하고 특강 및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해 심도 있는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열린 '동북아시아의 물관리 이슈'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물의 다양한 성질과 유연한 흐름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순리이다"는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한 류문현 박사는 전 세계의 물 부족 현상과 중국의 물 정책 및 수질 구축을 위해 동북아시아 물 정책에 대해 함께 연구 협력함으로써 '물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인문학의 흐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연구소는 향후 물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정책에 대한 고민을 공유·협력하고 특강 및

/익산=장왕원기자

대한체육회, 성공적인 체전 개최 위해 총력

익산시 방문 종합업무회의 · 주경기장 현장점검



대한체육회는 18일 익산시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업무회의 및 주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한체육회(체육진흥본부장, 대회운영부장 실무 담당자 등)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18 전국체전 주개최지인 익산시를 방문하여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업무회의 및 주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종합업무회의와 현장점검은 전국(장애인)체전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성공적인 체전 개최 및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익산시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과 전라북도 체육회 익산시, 익산시 체육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및 개·폐회식 운영계획, 주관방송사 및 홍보 운영계획, 분야별 운영계획 등

을 점검하고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전국(장애인)체전 주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개·폐회식 동선, 무대설치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공사 현장 사찰을 끝으로 양일간 점검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한 장애인시설(엘리베이터, 장애인램프, 장애인관람석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들의 경기참여와 경기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대한체육회 문화성 체육진흥본부장은 "이번 종합업무회의와 현장 실사를 통해 각 관계기관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 ~ 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 ~ 29.)은 주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군산시는 20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생학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공단 박준혁 노후설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다중보장체계의 중요성 및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추진해 자립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역량 강화교육은 연 4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2차 교육은 5월에 진행된다.

/군산=김정훈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재해대비 가상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소방서, 지역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금마면 금마저수지에서 재난대응 및 비상대처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익산시 지역에 규모6.0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금마저수지 제방 일부 균열 및 붕괴가 발생, 제방 하류부 농경지 및 주택침수 상황을 부여하여 상황보고, 비상연락체계, 인력·장비와 수방장제 확보 및 투입, 응급복구, 환자후송 요령 숙지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김진호 지사장은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위기대응능력을 키워 익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호원대 방문 면접 특강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역연계서비스의 일환으로 20일 지역소재 대학교인 호원대학교를 방문해 취업지원서비스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학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접 Best 스킬과 직무역량 & 스타일링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80여명이 참여해 직무성격에 맞는 이미지 연출 및 업계 동향과 특징을 반영한 면접 기법 습득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날 교육은 물리치료학과와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전공에 따른 면접 스킬을 학습하여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문 컨설턴트 2명과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



이 협업하여 진행했다. 군산대학교는 2017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청년의 진로취업서비스는 물론 정부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옥도면, 섬 지역 관광객 맞이 아름다운 꽃길 조성

군산시 옥도면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고군산군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선유도, 장지도 일원에 펜지, 금계국, 황금측백 등 꽃 2,000여본을 심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꽃길 조성에는 옥도면 마을주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도로변, 자투리땅 등에 꽃길을 만들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김경배 옥도면장은 "고군산연결도로 전면개봉으로 많은 관광객이 고군산



군도를 방문함에 따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군산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신시~무녀~선유~장지도를 잇는 고군산연결도로가 전면 개봉함에 따라 고군산지역은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